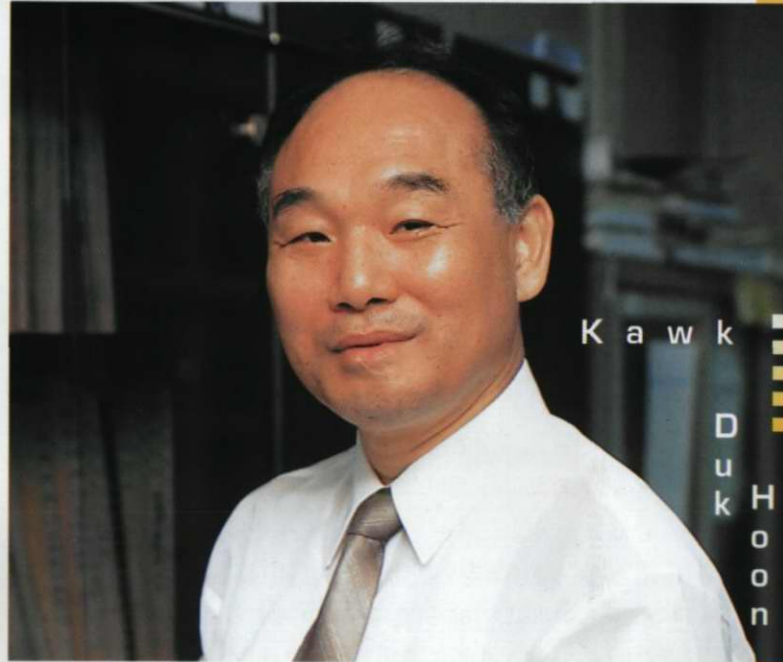


“e-러닝 표준화, 지금 하지 않으면 늦다”

국내 e-러닝산업이 IT경기의 침체와 표준화의 미비 등으로 인해 기대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 가운데 최근 '한국e-러닝 표준화 포럼'이 출범, 본격적인 e-러닝 표준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e-러닝 관련 기반기술 및 학습환경, 콘텐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한국e-러닝산업협회와 사이버교육학회가 공동 주관해 설립한 e-러닝 표준화 포럼은 지난달 2일 광덕훈(54)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취재 신종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e-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학계, 업계 모두가 긴밀한 협력 하에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반기술과 학습환경, 콘텐츠의 표준화는 산업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덕훈 초대 회장은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정보화연구회장, 한국교육정보기술표준화 위원장, 사이버교육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면서 국내 e-러닝 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다. 그런 그도 이번 표준화 포럼 출범에 대해 갖는 기대는 적지 않다.

광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e-러닝이 발달하고 보편화된 미국은 이미 세계 표준을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아시아 e-러닝 시장 선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국내 e-러닝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학계, 기업 모두의 공동 노력을 통한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표준화 작업의 경우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며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산업 전체에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해 이번 표준화 포럼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 역시 부처간, 기업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응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

광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e-러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실상부한 국내 e-러닝 표준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공적, 사적 표준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럼의 기구체계는 총회를 기준으로 포럼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e-러닝산업협회 중심의 협회 분과와 사이버교육학회 중심의 학회 분과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협회 분과에서는 시스템기술과 학습환경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학회 분과에서는 콘텐츠와 연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포럼은 앞으로 국내 e-러닝 산업체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분과별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온라인 포럼을 통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공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 표준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광 회장은 “이제까지는 하드웨어의 표준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표준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메타데이터와 학생정보, 교과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국내 표준안을 정립하고 국제표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표준의 국제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